

제11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1

9월 3일부터 7일 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카시아 포럼이 개최되었다. 2년 전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2년만의 포럼이다. 아시아 16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아카시아는 격년제로 포럼과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연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Man Architecture Nature 로 요즈음 모든 분야에서의 화두처럼 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Nature란 어휘로 인간, 건축 뒤에 붙었다.

이제껏 건축은 Nature에 대한 인공환경으로 인식되었고 어떻게 어려운 자연환경을 극복하여 건축물을 세우느냐에 많은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었지만 이제는 건축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 이는 서양의 근대성의 실패에 따른 동양적 사고로의 이전과 그 궤를 같이하는 접근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포럼 중의 많은 논의는 Post-modern적 사고에 대한 재해석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졌고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역성'과 '역사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발표자들에게 주제가 주어졌음에도 건축적 접근이 주제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건축가들도 있었고, 포럼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파악 없이 신변잡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발표자들도 있어서 발표자 선정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필자주)

9월 5일

9월 3일과 4일에는 이사회(Council Meeting)가 있었고 5일부터 포럼이 시작되었다. 싱가포르 정부 관계장관과 포럼 진행자인 Goh Chong Chia의 축사 후에 Charles Correa의 주제와 관련된 연설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본격적인 포럼으로 접어들었다.

Correa의 발표내용은 한국 건축가들이 이야기하는 '전통건축이 간직하고 있는 에스프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자연에 대한 존중, 빈 것의 중요성-

Lim William, Singapore

점심식사 후 싱가포르인이며 호주 Royal Melbourne 공대 교수인 Lim William의 발표가 있었다. 기억, 욕망 그리고 정신 - 포스트모던 도시의 현상 (Memories, Desire & Spirit - Phenomena of postmodern urban)이란 제목으로 현란한 슬라이드 및 음악을 곁들인 포스트 모던적 발표였다. 근대성에 담겨있던 일원적 가치관에 대한 반박과 목적성 강한, 그러나 실제로는 맹목적인 전진에 대한 비판을 앞세우며 'flaneur' (프랑스어: 목적없이 돌아다님)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결국 '느슨함'과 '느림'의 포스트모던적 사고와 유사하며 이 단어 역시 요즈음 인문 분야에서 유행하는 언어의 한 조각이다. 자칫 영어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하는(?) 포럼의 특성상 이 단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다면 전체 주제를 놓칠 뻔한 발표였다.

70가까워 보이는 나이에 포스트모던에 대한 깊은 이해의 지적 탐구력이 돋보였다.

Heinz Paetzold, Germany

이어서 독일의 철학자이며 Kassel 대학 교수인 Paetzold가 Post-functional urbanism and the

postmodern 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근대성을 대표하는 Corbusier의 건축과 도시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이야기하며, 한편으로 근대성의 실패에 대한 자성으로 대두된 Postmodern의 형태적 변형의 '알음'을 지적하면서 건축에 있어서의 Postmodernity는 Modernity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서론으로 강의를 열었다. 그는 Post-functional Urbanism이란 어휘를 사용하여 Collin Rowe의 Collage City에서 논의되는 건축가의 역할 - 도시계획가를 'Social Engineer'로 인식하는 근대성으로부터 'cultural tinker' (문화의 조립자)로 인식하는 후기근대성으로 이 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도시계획이 미로를 제거하고, 명확한 이론에 근거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도시에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도시내의 복잡성과 확장성, 모호함과 경계의 불분명성, 이름붙일 수 없는 집중적인 성격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논의의 배경엔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이즈음의 후기구조주의의 철학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건축적으로는 Peter Eisenman, Aldo Rossi, Rem Coolhaas의 건축적 사고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모더니티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기 보다는 모더니티에서 놓친 문제들에 대한 제기 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그 논의의 소재 중에 포럼의 주제인 Ecology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 성실함과 영민함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

Karina David, Philippine

필리핀의 사회학전공 교수이며 주택도시정책위원회 비서인 Karina David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제목은 Housing for Poor 였다.

빈민을 위한 주택은 UIA의 4대 정책 중의 하나로 건축가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는 취지로 작년부터 인도, 필리핀 등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현상설계등을 통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David는 건축가의 역할이 이제껏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만 치우쳤다고 주장하고 빈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해줄 것을 권고했다

#### Kazuhiro Ishii, Japan

일본 건축가이며 와세다 대학 초빙교수인 Kazuhiro Ishii는 Geocosmology 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설계한 건축을 중심으로 환경을 고려한 건물 설계의 중요성과 이를 고려한 자신의 건축관을 발표했다. 목구조를 이용하여 CO2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건물과 고층건물에 조경을 도입하여 건축과 일체화시킨 건물을 소개했다.

#### Ken Yeang, Malaysia

환경건축설계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의 입지를 굳히고, 이로 인해 유명 건축가들과의 협력작업을 통해 국내에도 알려진 말레이시아 건축가 Ken Yeang의 'Skyscraper & Groundscrapers'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건물 설계시 고려해야할 환경적 요소를 분석, 나열하고 이를 적용한 설계의 예들을 발표했다. Ken Yeang의 발표를 두세번 들은 입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의 반복이라는 느낌과, 설계의 수많은 중요한 인자들 중 환경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적용 결과의 효과에 대해 아직 확실한 증빙이 없지만 제시하는 자료 및 설계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늘 명쾌하고 건축적이란 인상을 받는다.

#### Leon Van Schaik,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건축가이며 멜버른 기술대학 건축과 교수인 Leon Van Schaik은 건축에 있어서의 Second

Order Modernism' 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많은 인용문과 건축가를 예로 들면서 발표한 내용은 현대건축의 일반성과 세계성의 실패에 대한 지적과 역사와 전통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설계한 건물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다. 화려한 장식적 어귀에 비해 특별한 내용이 없는 발표였다.

### 9월 6일

9월 6일의 포럼은 각 나라의 젊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위주로 건축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 방법과 시도들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첫날의 발표에 비해 포럼의 주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낮고, 개인의 건축적 성향에 대한 주장이 많아 작품에 대한 슬라이드나 사진 없이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발표자에 대한 신상 및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글을 줄인다.

#### William Alsop, UK

주제 - Privileged Geography

영국 건축가로서 건축이론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창조력과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을 전개해가는 건축가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작업한 로테르담 프로젝트를 비롯한 몇 개의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 했다.

#### Tang Guan Bee, Singapore

주제 - Relevant

이번 포럼의 개최국인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싱가포르 건축상을 12회 수상한, 싱가포르에선 지명도 높은 건축가이다. 자신의 작품 중 자신의 사무실 설계를 중심으로 Eco-Design 과 관련된 몇 개의 작품을 소개했다.

#### Yong Ho Chang, China

주제 - Urbanizing Bamboo

미국의 버클리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에서 활동하다가 북경대학 건축과 교수이며 건축가로 활동 중인 Chang은 도시 내에서 대나무를 조경 및 건축의 요소로 적극 이용하는 자신의 설계를 선보였다.

#### Minn Sohn Joo, Korea

주제 - Learning from Here and Now

한국의 여성 건축가인 민선주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적 이상과 실제상황과의 괴리와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관중의 가벼운 관심을 유발시키기는 했지만 관중이 건축관련자임을 감안 할 때 주제 및 내용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Kanika Ratanapridakul, Thailand

주제 - Learning to be Useful

미국에서의 오랜 유학생생활과 건축 활동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와 작업을 하고 있는 건축가로, 자신의 정체성 및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주택설계를 발표하면서 설명했다

#### Sara Topelson de Grinberg, Mexico

주제 - Contemporary Mexican Architecture

1996년부터 1999년 까지 세계건축사협회인 UIA회장을 지냈던 Sara Topelson은 멕시코 건축가이며 활동적인 교수로도 유명하다. 현재 멕시코 국립 예술원 원장을 맡고 있는 Sara는 멕시코 건축역사 전반에 걸친 소개를 했다.

마야 문명에서부터 스페인 식민시대의 전통이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소화되고 변형, 발전되었는지 설명 했는데 현대 건축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론적, 혹은 미적 관점을 넘어서 여러 분야와 연계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돋보였다.

#### Hani Rashid, USA

주제 - Architecture in the Age of

## Convergences

인도계로 보이는 미국 건축가 Hani Rashid는 1989년 설립된 Asymtote의 공동창립자이며, 현재 콜럼비아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지명도 있는 건축가이다.

컴퓨터를 통한 건축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며, 뉴욕증권거래소의 사이버거래 디지털 디자인으로 A+U 잡지에 소개되었으며, 디지털 디자인의 권위자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의 발표도 구겐하임 시각 박물관내의 디지털 디자인 등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설계를 소개했다. 다른 분야와 같이 건축에서도 컴퓨터가 차지하는 영역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발표였다.

### Shuhei Endo, Japan

주제 -Para Modern Architecture

일본의 소장 건축가인 Endo는 현대 건축의 문제점을 확실성, 단순함, 지루함등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Para-Modern'이란 용어를 통한 경계의 모호함을 이야기하며 이에 따른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외국잡지에 소개되었던 낯설지 않은 작품으로 골철판을 이용한 소규모 건물로써 연결된 곡선형으로 내부가 외부로 변하고, 외부가 내부화하며 지붕이 바닥이 되고 벽과 바닥이 지붕이 되는 경계의 모호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소개했지만, 그 작품들이 현대건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되기에는 너무 직선적이며 그 질량이 작고 왜소했다.

### Rahul Mehrotra, India

주제 -Architecture and Cultural Significance

모두가 인지하듯 인도는 엄청난 전통 건축을 갖고 있다. 인도의 건축가를 대할 때마다 그 전통의 무게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Rahul 역시 인도건축의 보존과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 했고, 이에 따른 자신의 건축을 소개했지만 다른 나라의 이즈음의 건축과 별 다른없는 재료와 형태일 뿐이며, 한국 건축상황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느꼈다.

## 총 평

20명 가까운 각 나라의 건축가 혹은 건축을 이해하는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나와 수많은 이론과 작품들을 전개하는 한 가운데서 현학적인 어휘들에 지루해하기도 하며, 계속되는 언어의 범람에 질기도 했지만 그 논의들 뒤에는 도도히 흐르는 'Post-Modern'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한국 건축계에는 'Post-Modern'을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사람이거나, 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폐쇄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상하게도 다른 분야보다 빨리 건축에서 논의되었던 Venturi 류의 'Post-Modern'은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타인문, 예술분야에서 논의되는 'Post-Modern'의 깊이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형태적인 'Post-Modern'이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론 소개와 도입이 Modernism을 국내에 도입할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답습하게 하고 있다.

포럼에서 진행되었던 논의의 옹고 그름을 떠나 건축에 있어서의 국제적 관심사와 국내의 건축적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단선적인 패거리건축과, 특별한 재료와 형태를 선호하는 폐쇄적 행태의 잡지건축이 더 이상 한국 건축계를 이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보다 풍부한 건축 이론적 접근과 다양한 건축적 시도 그리고 이런 다양한 담론과 시도를 담아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인도와 같이 전통을 팔려는 안쓰러운 노력보다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그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해하려는 다원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건축을 미적 구현물로 이해하는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건축가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도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Identity를 원한다면 -건축가가 작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Identity보다는 개인적인 Identity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간단한 현실이었다.

아름다운 건물과 깨끗한 가로환경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그러나 그 곳에서도 건축보다는 이름 모를 나무와 바다가 아름다웠다. (글 / 이필훈)

## 아시아건축사대회 건축위원회

- 장소 : 싱가포르 SUNTEC CITY 회의장
- 일시 : 2001. 09. 03 ~ 2001. 09. 04
- 참가국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 위원장 : Yolanda D Reyes, 필리핀

### 머리말

ARCASIA 교육위원회 (ACAE) 회의가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SUNTEC CITY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Workshop은 생략되었으며 주로 아시아 각국의 건축교육실태보고와 ACAE에서 추진중인 건축대학협의회 창립 및 ARCASIA 건축대학 설립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 토마건축의 민규암 소장과 필자가 참석하였다. 이틀간에 토의되었던 회의 주제 및 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의주제

1. 건축교육 Conference 개최
  - a) 아시아 건축교육 Conference - 동경, 2001. 04
  - b) 21세기를 위한 건축교육의 재구성 - 홍콩, 2001. 07
  - c) 아시아 건축교육 ACAE Conference - 싱가포르, 2001. 09
2. 아시아 각국의 건축대학 현황 및 시대별 대표건축물 Chart 제작
  - a) 각국의 건축대학 및 건축관련학과 Data 작성
  - b) 각국의 시대별 대표건축물을 정리하여 Chart로 작성 (Architectural Timeline Chart)

3. ACAE Country Report
  - a) 각국의 Country Report 보고
  - b) 태국에서 제안한 Architecture School 설립에 관한 건
  - c) Codhasia(Conference of Deans and Heads of Architecture School in Asia) 협의회 설립건

### 회의내용

1. 2000년 9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ACA9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보고가 있었다.

2. 일본과 홍콩대표들은 2001년 4월 및 7월에 개최되었던 건축교육 Conference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특히 홍콩회의에는 동국대 김홍일 교수와 필자가 참석하였다. 이어서 싱가포르의 대표가 9월 7일에 싱가포르 대학에서 열릴 Conference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토마건축의 민규암 소장이 참석하였다.

3. 아시아 각국의 건축대학 협의회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건축대학 및 건축관련학과 Data를 제출하였다. 한국측은 건축관련학과 216개중 4년제 이상의 건축과가 있는 60개 대학들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각국의 대학 명단은 UIA 제 4지구 학교현황조사에도 사용될 것이다.

4. 아시아 주요건축물들을 시대별, 국가별로 정리하여 서적으로 출간하기 위한 Architectural Timeline Chart도 제출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출하지 않으므로서 2001년 11월로 제출일자가 연장되었다. 우리의 시대별 대표건축물들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이며 각국의 Chart를 편집하여 출판하면 학생들의 건축사 교육에 사용될 것이고, 건축기행안내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5. 각국의 대표들은 자국의 교육관련 Country Report를 제출하고 주요 Issue들을 발표하였다. 한국측은 현재 수십개의 대학들이 교과과정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변경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한국은 건축관련학과 216개가 170여개의 대학내에 있으나 싱가포르에 건축대학 1개, 홍콩 2개, 일본 160여개, 인도네시아 120개, 인도 150여개, 중국 120여개, 파키스탄 6개, 필리핀 43개, 태국 17개 등이 있어 인구비례로 볼 때 학국내에 건축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학들이 5년제의 Bachelor of Architecture 또는 6년제의 Master of Architecture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120개 학교중 64개 건축대학이 자국의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파키스탄은 6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복잡한 교육제도 및 건축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건축관련 대학중에는 고등학교과정부터 시작하는 5년제 Junior College가 10여개 있으며, 건축사제도도 Architecture + Engineering 건축사이며 더욱이 1급 및 2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총 건축사수는 무려 700,000명이며 이중 1급 건축사는 270,000명이고 이중 순수 건축설계에 참여하는 건축사는 70,000여명이다.

일본은 자국의 현 대학제도를 유지하면서 학사과정을 보완하여 UIA 권장 기준에 맞추어 나갈것으로 보인다. 현재 4년제 학부생 중 70% 정도가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한다.

건축사 시험은 각국이 대체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인터뷰 테스트가 포함되며 인터뷰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필기시험 응

시자격을 상실한다.

6. 태국이 제안한 "Architecture School" 태국내 유치건은 2000년 쿠아 리움폴 ACA9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이다. 작년 회의때보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었으나, ARCASIA 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나 졸업생들에 대한 학위 인정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00년 회의에서 태국과 동시에 Architecture School을 제안했던 인도측 대표는 작년 회의에서 ARCASIA Education Program으로 규모를 축소시키는 안이 제시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ARCASIA Program중 하나로서 다음 회기까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7. 아시아 건축대학장 협의회 (CODHASIA : Conference of Deans and Heads of Architecture School in Asia)는 아시아 각국의 건축관련대학들의 다양한 학사과정 및 학교제도등을 고려하여 ARCASIA 교육위원회협의회의(ACAE Conference)로 명칭을 바꾸었다. 2명의 ACAE 부위원장 중 Academy 담당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8. 끝으로 UIA 제4지구 Councillor 인 호주의 Louis Cox씨는 2002년 베를린 UIA 총회에 제4지구 의결안으로 건축대학 5년제 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건축대학 5년제는 3년 + 2년 또는 5년 이상의 Professional Degree 교과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에 인증원을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건축대학인증은 자국의 인증원으로부터의 인증이 우선이며 일단 자국 인증원에서의 승인이 없으면 UIA에서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안은 베를린 총회 상정때까지는 비공식 (Unofficial)안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들은 UIA 권장기준에 대비한 건축대학제도 개선, 인증원 설립, 자체 건축대학 인증 실시, 건축사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글 / 이인호)

### 1st ACAE Conference on Architectural Education for the Asian Century

아카데미 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건축 교육에 관한 회의가 2001년 9월 7일 싱가포르의 국립 싱가포르 대학(NUS)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아침 9시에 시작되어서 저녁 6시경까지 잠깐의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20여명의 발표자들이 20분 간격으로 자신들의 논문을 간략히 소개하는 형식을 갖추고서 진행되었으며 크게 오전에 2개 그리고 오후에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다.

사회는 싱가포르 대학의 Milton Tan 교수가 맡았으며, 20명의 발표에 앞서서 저명한 인도의 건축가인 Charles Correa와 NUS의 Liu Thai Ker 박사의 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두 발표자와 각 논문 발표자들의 발표주제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 Keynote Speakers

#### 1. Dr. Charles Correa

키노트 스피커로 나선 두사람중 첫 번째 발표자 였던 Charles Correa는 건축교육에서 스튜디오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이야기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상 MIT의 스튜디오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튜디오 학생들이 스스로의 설계기준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하며 직접 교수가 무엇인가를 가르

치기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 2. Dr. Liu Thai Ker

싱가폴 대학의 Liu Thai Ker 박사는 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주로 3+2(학사) 제도에서 4(학사)+1(석사) 제도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다.

### Selected Papers

발표자: KVAN, THOMAS , Hong Kong

논문: The Problem in Studio Teaching-Revisiting the Pedagogy of Studio Teaching

건축과에서 전통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스튜디오 교육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 하면서 더욱더 PBL model (problem based learning)에 치중하는 스튜디오를 설명. 이를 위한 5단계를 같이 설명.

발표자: DATTA, SAMBIT AND ROBERT F WOODBURY, Australia

논문: On Making : a Reflective Lens for the Design Studio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컴퓨터의 활용과 이를 통한 스튜디오 교육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CAD의 특성을 closed world, problem solving, global control, sequential 로 보고 이에 대한 건축설계 과정을 open world, problem formative, no global control로 보면서 서로 이 두가지 성격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

발표자: SANTOSA, M, Indonesia

논문: Eco Architecture as One of Design Research in Indonesia

도시내 녹화를 통해서 홍수와 하수 비용제거, 상수원 보호 등에 관한 설명

발표자: YANG, PERRY, Singapore  
논문: Digital Geographic Design  
싱가폴 대학의 교수인 YANG은 미국 MIT 출신으로 단순한 CAD가 아니라 GIS가 건축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 인지를 설명.

발표자: SHIN SHEN-GUAN, Taiwan

논문: Web-augmented Knowledge management for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웹을 통해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연구. 개인으로서 정보를 얻거나 팀 작업을 통해서 각 팀원간에 정보를 어떻게 공유 할 것 인지 등등

발표자: D' SOUSA, NEWTON, Singapore

논문: A New Agenda for Asian Design Studios

싱가폴 대학의 학생인 NEWTON은 서양의 스튜디오와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에 따르면 서양식 교육은 너무나 보편적인 문제해결 모델만을 제시해 왔고 앞으로 동아시아 교육은 이를 벗어나 좀더 지역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발표자: HATMOKO, ADI UTOMO, Indonesia

논문: Complementing Tradition and Innovation in Architectural Education

건축교육에서 전통모방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모양과 형태를 모방하거나 또는 건축이 조합되는 구조 수법을 모방하거나 또는 그 철학적 내용을 모방하게 된다. 이 모방의 과정 속에서 스튜디오 교육은 각 학생들이 무엇을 '의식적'으로 모방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발표자: SINGH, JITENDRA,

India

논문: Architectural Education for Asian century -Indian Experience

인도의 교육제도와 소요기간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

발표자: HORAYANGKURA, VIMOLSIDDHI, Thailand

논문: Towards Creating a More Responsive Environment: Impetuses and Constraints in Architecture Education

서양적 교육에 이미 물든 동아시아 교육제도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동아시아 만의 독특한 스튜디오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논의.

발표자: SCHNABEL, MARC AUREL, and THOMAS KVAN, Hong Kong

논문: Implementing the First Virtual Environment Design Studio

3차원 버추얼 디자인 스튜디오 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인 MARC는 홍콩과 독일에서 각기 진행시킨 버추얼 스튜디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발표자: LIM, JOSEPH, Singapore  
논문: Design Learning in a Twelve Day Building Expedition

직접 목구조의 건물을 학생들과 함께 12일간 시공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교육에 직접적인 시공과정을 도입하는 스튜디오 교육을 설명.

발표자: HO CHI WING, Hong Kong

논문: Educating the Urban Designers: as Architects or as Planners?

Urban Designer의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주로 Urban Designer를

large-scale architect로 보고 교육 시킬 것 인가 아니면 Urban Planner의 입장에서 교육 할 것 인가를 설명.

발표자: MO, JULIE K.W., Hong Kong

논문: Facing the Changing Mode of Architectural Professionalism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홍콩 교육에 대해서 설명했다. 주로 홍콩대학이 추구하는 평생 교육 시스템을 설명.

발표자: WONG, JOSEPH FRANCIS, Hong Kong

논문: Holistic Architectural Education:

A Problem based Curriculum for Architectural Studies

PBL을 도입하는 스튜디오 교육을 주장. 스튜디오 교육에 직접 실제상황과 같은 건축주가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재상황 속에 학생들이 놓이게 하는 스튜디오 교육과정 설명. ■ (글/ 민규암)